

11차 중보기도 훈련 소감문

1. 11차 중보기도 훈련 소감문(5교구 심미정성도)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에22:30)

기도를 잘~ 오래도록~ 힘들다 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답답할 정도로 모르겠어서 이번 훈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달게 하시고 주셨습니다.

통 눈물이 없던 저에게 훈련 기간 중 전교인 성경읽기 마태복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픔과 감사. 나의 무지함과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며 눈물로 읽게 하시더니 친구의기도 조카의 기도 속에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번 훈련 과정 속에 주님은 저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소멸되지 않게 붙잡고 기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 가까이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기도자의 특권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가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훈련 과정 속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목사님~ 선배님으로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신 임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5교구 심미정성도)

2. 11차 중보기도 훈련 소감문(6교구 최재민집사)

충현교회 주간충현을 통해 중보기도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신청을 하게되었고 교육을 통하여 다시 깨어있게 하는 계기가 된것같아 너무도 기쁩니다.

늘 기도는 호흡이다 생각하며 살고있지만 이기적으로 나를 위한기도 가족을 위한기도만 하지않안나 생각이들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아는것만큼 보인다고 하던데. 하나님 세계는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 더기도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 기도로 나의 지경을 넓히며 중보기도 사역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6교구 최재민집사)

3. 11차 중보기도 훈련 소감문(1교구 이연숙집사)

저는 중보기도 1강날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서 1강수업이 끝나고 기도실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중보기도란 남을 위한기도 이타적인 기도 타인에 아픔을 나의 아픔과도 같은기도 이웃을 위한기도 이웃사랑실천 기도라는것을 배우면서 과연 저는 이런기도를 드릴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져 있을까라는 죄책감도

또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중보기도단에 불러 주셨을 때는 어떤 뜻과계획이 있으시지 않나 하는 깨달음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중보기도단에 한사람으로써 사명감 가지고 맡은 책임 감당 잘 해서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이번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주요하다는것 다시한번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였습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것 잊지않고 교육 받는데로 지켜야할 여러가지 항목과 비밀유지에 각별히 신경쓰면서 이웃사랑에 실천 하겠습니다. 모든 섬김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1교구 이연숙집사)

4. 11차 중보기도 소감문(10교구 길보숙타권)

활동적인 교회 생활을 하기엔 이제는 적은나이도 아니여서 예배와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40개월된 손주의 기도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마음에 찔림이 왔었습니다. 마침 중보기도부 사역 강의를 한다는 소식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의 주옥 같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였고 특별히 중보기도의 7 구성요소와 전략적인 기도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말씀이 저의 좁아진 심정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통하여 나의 좁은 영역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하여 하나님의 일 하심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사모해 봅니다.

11기 중보기도 사역의 지체로 함께 할 수있도록 용기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사랑의 수고로 섬겨주시는 중보기도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10교구 길보숙타권)

5. 11차 중보기도 훈련 소감문(2교구 김양순집사)

기도가 너무도 어렵고 두렵기만 했던 나에게

11기 중보기도훈련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은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을 깨달게 하시고 확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전심을 다하여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훈련으로 받은 지혜로 중보기도자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웁니다 (2교구 김양순집사)

6. 11차 중보기도 훈련 소감문(6교구 최재민집사)

충현교회 주간충현을 통해 중보기도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신청을
하게되었고 교육을 통하여 다시 깨어있게 하는 계기가 된것같아 너무도
기쁩니다.

늘 기도는 호흡이다 생각하며 살고있지만 이기적으로 나를 위한기도 가
족을 위한기도만 하지않안나 생각이들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아는것만큼
보인다고 하던데. 하나님 세계는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 더기도하며 예
수님 닮아가는 생활, 기도로 나의 지경을 넓히며 중보기도 사역을 잘 감
당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6교구 최재민집사)

7. 11차 중보기도 훈련 소감문(6교구 김동균성도)

나는 철들고 나서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게 싫었다.

맨날 어머니방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내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
으로 작용해서 짜증도 많이 냈었다. 때로는 반발심으로 기도와는 반대방
향의 선택을 하기도 했다.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서 내인생의 위기의 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는 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내 나이가 그때
의 어머니 나이 보다 훨씬 더 먹었는데 이제야 중보기도를 알고 싶고 하
고 싶었다. 이번 교육은 내 믿음을 처음부터 점검하고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소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다. 바르게 제대로 믿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형제자매와 서로 중보하는 기도생활을 하기를 원
합니다.나도 실은 기도할 때에 너무도 눈물이 납니다. 꼭 우리 어머니

우셨던 기도를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현교회가 믿음의 보루가 되기를 그리고 회복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6교구 김동균성도)

8. 11차 중보기도 훈련 소감문(7교구 이인용 집사)

8월 매주 토요일 총 4주에 걸친 중보기도 훈련이 막을 내렸다 평소 기도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자책감이 있었는데 때맞춰 중보기도훈련 소식은 강한 동기로 다가와 망설이지 않고 지원하게 되었다
총 8강에 걸쳐서 친구약을 아우르는 중보기도 용사들의 사례를 배우며 실제 짝 기도로 기도훈련도 하면서 실시되는 교육은 참으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효과적인 교육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수강생들을 향해 기도처도 만들고 시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윤준식 목사님의 질문은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할텐데라는 숙제로 남아 있으니 유감이다 (7교구 이인용 집사)

9. 11차 중보기도 훈련 소감문(11교구 서현옥 권사)

11기 중보기도 훈련학교를 등록하고 4주간 훈련을 잘 받을 수있을지 매우 염려 하였습니다.
얼마 전 다친 발과 허리 디스크의 통증이 심하여 치료 중 약 부작용으로 눈까지 심한 통증이 생겨 지친 심신은 회복되지 않았기에 두려움이 컸습니다. 발에 테이핑을하고 진통제를 복용 후 401호로 찾아갔을 때, 그 곳에는 환한 웃음으로 친절히 맞아주신 권사님들이 계셔 순간 모든 염려는 다 내려놓고 훈련을 받으며 오직 심령으로 재무장 되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헌신해주신 목사님과 섬겨주신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11교구 서현옥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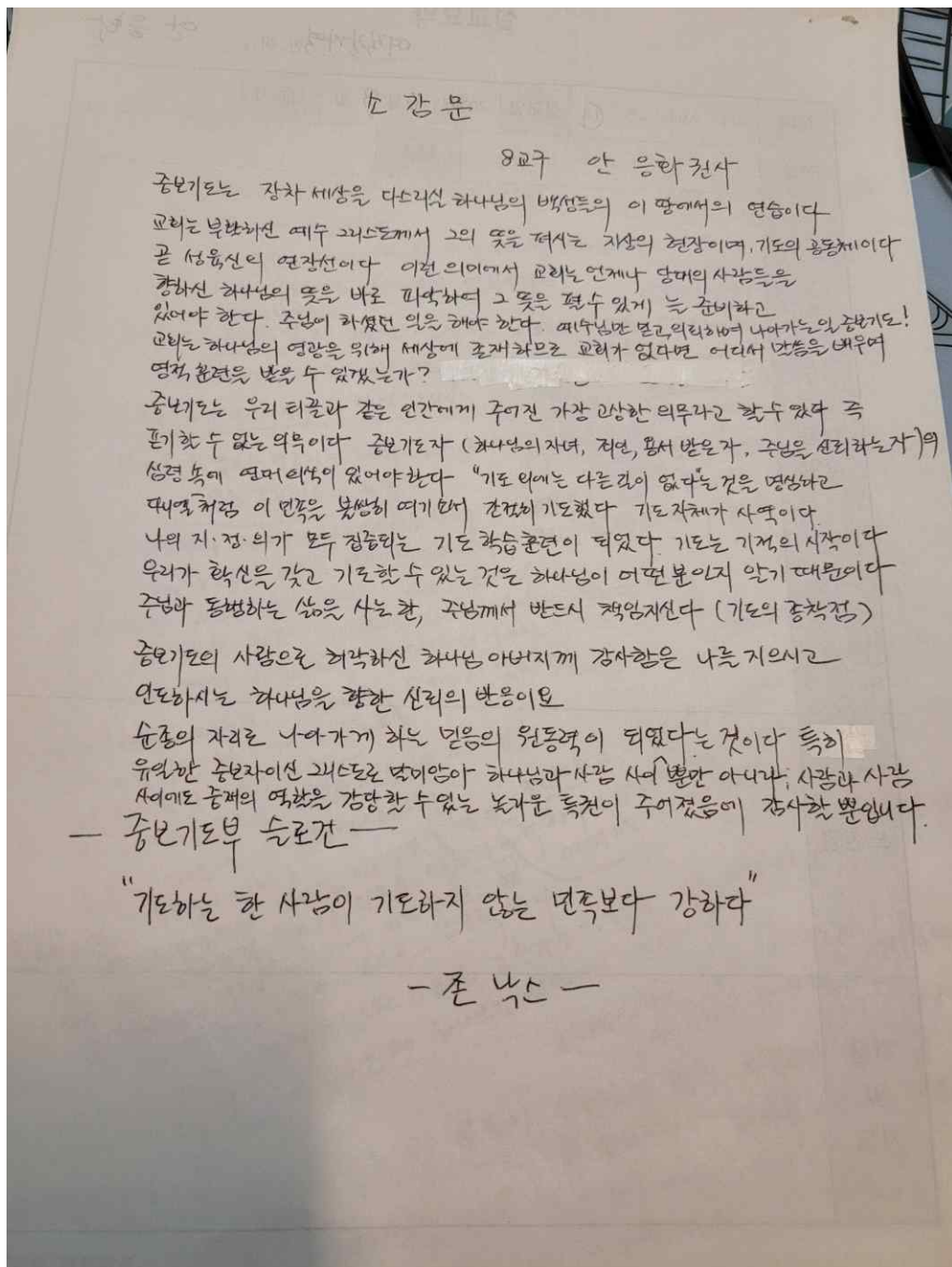
10. 11차 중보기도 훈련 소감문(11교구 김규상 장로사)

기도는 믿는 자들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 불멸의 에너지입니다. 사람 중 누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중보기도 사역 훈련 강의를 듣는 아내를 따라 나섰다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저도 동참하여 그 기도의 여정에 도전했습니다.

죄인 중의 죄인인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하신 주 하나님을 의지함이니 지치고 피곤할 때에 기도하는 제 오른팔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붙들어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1교구 김규상 장로사)

11. 11차 중보기도 훈련 소감문(8교구 안응화권사)



12. 11차 중보기도 훈련 소감문(12교구 윤아리성도)

12교구 20201856 윤아리 입니나.

중보기도 교육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초신자로서 중보기도에 참여하게된 계기는 보잘것 없는
저를 구원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믿어야 하며 순종하
고 복종하는 주님께 삶을뉘아 가야하는 저로서는 예배와
성경말씀, 기도가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 기도
에 대한능력이 주는 축복과 커다란 힘이 된다는것을
알게됐습니다..나를 위하고 가족을 위해기도할때 보다
남을위해 기도해야 할때좀더특별한 지식과 배려가 있어
야 한다는 것을느꼈습니다!

중보기도가 남을위한 기도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으로 성령 안에서 고귀한 생명과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
하고 믿음으로간절히 나와 가족같은 소중한 마음으로 기도
해야한다는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큰뜻을 알고 남을위한 기도에 교육은 너무짧아
아쉽기만 합니다!..하지만중보기도란 무엇인지 좀더깊
이 깨닫게되는 기회였습니다.!

부족한 죄인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더 깊이알게 지
도 해주신 목사님.권사님 집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전은 아직 세례받지 못한 상황에서저에겐너무나
은혜로운시간 이였으며 주님이주신 큰사랑과 배려에
너무 감사하고 축복된 시간 이였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삶을

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13. 11차 중보기도 훈련 소감문(5교구 장숙희권사)

중보기도 훈련 11기 장숙희 권사

먼저 4주간의 중보기도 훈련 과정을 수료 하게 하시고 중보기도부가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보기도 훈련을 사모 하면서도 시간이 안 맞는다는 핑계로 미루다가 이번 11기 모집에 막상 신청하려니 (집안 형사와, 나도 집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굳이~, 드물 4주를 아쉽 일찍 나오는 것에 대해~)

부담이 되면서 12기로 미루자?
 커다가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하면서 시작했는데~
 결과는 대만족!

우공으로 이루어진 교재 하나 하나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중보기도에 대해 말씀과 요청으로 자임새 있게 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보기도부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불사로 섬기고 계신 권사님들의 수고함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3주차에는 중보기도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 내가 기도 할 수 없을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적으로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 라는 것과 말씀(언약)을 붙들고 나의 기도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삼가 지켜주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마음에 되 새겨 봅니다.